



대행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마음이 천차만별 살림살이 합니다

15면에서 계속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눈 뜨고 감고 낮고 서고 하는 생활을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놈이 무엇이고 하고 의심내기 이전에 일체를 그놈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넘겨야 해요. 지금처럼 밝은 세상에 "그놈이 뭐고" 하기보다는 일체를 그놈이 하고 있구나 하고 뛰어 넘어가란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 생전에 오고 감이 없이 오

**"색경을 바라
네가 손을 쳐들면
나도 손을 쳐들 것이고
네 그릇이 크다면
나도 클 것이고
네가 울면
나도 우는 것이니
따로 있다고 생각말라"**

고 감을 알고, 들은 사이 없이 듣는 걸 알고, 말하는 사이 없이 말하는 걸 알며, 봐도 보지 않는 걸 알고, 저 구름이 스스로 오고 가는 걸 알고,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걸 알고, 망상이 망상이 아니라 마음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도리를 증득해야 합니다.

그때 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 다 속에 투영만 열면 모습을 최상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라이 하지 않겠습니까? (중(衆)이라 함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중은 계·정·혜 삼학을 모두 갖춘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계도 정에 들고 해도 정에 들어서 계를 지킨다 안 지킨다 없이 그대로 여겨함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중(衆)이 되어서 어느 소임을 맡든 수천 수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대장부로서 나가갈 때, 비로소 우리 국가의 역사도 거대하게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산천초목을 쳐다보고 가슴 속에 흘러는 눈물이 한 방울의 피와 같이 바다를 메꿀 수 있는 한 방울이 되어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역대 조사와 일체제련의 마음이 접근이 된다든 그대로 여여하게 행할 수 있으니, 그때 비로소 역대 조사들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일체제련의 마음도 알 수 있으며 바람의 마음, 물 한 포기 마음도 알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나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본래 나빠서 나쁜 짓을 하는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독이 들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팔자·운명도 불을 자리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켜서 팔자를 만들고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밖에 미국에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야야, 저기 프로펠러 돌아가는 것이 보이느냐?" 하고 옆에 앉았는 스님

더러 물었다니 "안 보입니까" "그래, 안 보이긴 하나 돌아가는 건 알지?"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요, 돌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돌아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돌아가는 불바퀴에 어떠한 문제가 탁한데도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맡겨놓으면 당도대로 소멸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견성으로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으나 용도에 따라서 굳은 믿음으로 너만이 이것을 녹일 수 있다고 진실히 믿는다면, 그 믿는 마음이 풀려서 지 않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을 하는 반면에 상황에 따라서는 남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 방편으로 거짓 아닌 거짓말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이것을 융통성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못 생겼든 잘 생겼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맡겨 놓을 때 불바퀴에 닿지만 하면 타 버리고, 갈아져버리고, 부서져버리고, 녹아버려서 홀연히 여러분의 참자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맛을 본 분들은 "내가 이만하면 깨달았구나" 하고 만족해 할지 모르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절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망상을 갖지 마세요. 견성했다면 그건 겨우 땅에서 싹이 나왔을 뿐이지 그것이 다 갈려져서 이삼전심으로 조화를 이루고 돌아갈 때 비로소 돌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르러도 깨달았다는 말은 못합니다. 열매가 맺어서 무르익어 온 누리를 두루할 때, 그 씨를 되심어서 세세생생 끝간데 없이 먹일 수가 있는 실과가 돼야만 이룰에서 구경 경지에 이르러서 과거·현재·미래를 통달해 참 인간이 돼야만 자유인이 되는 것이며, 그 실과 하나는 없애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공부 가슴에 닿지않아요

문 마음공부가... 저는 절에 다니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아직까지 제 가슴이 닿는 것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 생활하면서 안에 닿지는 대로 믿고 놓으세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불바퀴에 맡겨 놓으면 부서지고 타서 녹아 없어집니다. 과거의 업보·유전·영계의 문제, 인과가 다 녹아 없어져서 본래의 자기를 발견하게 될테니까요. 그러나 열

심히 정진하세요.

한걸음 한걸음 걸으세요. 초등학교 학생이 갑자기 대학교에 가려고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스스로 알게 되는 대로 되돌려 놓으세요. 일체를 주인공에서 들고 난다는 것을 믿고 맡기며 사세요.

그래요, 항상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느냐구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공했다는 데도 말입니다.



그림 · 최추현

누누히 얘기합니다만 아버지가 됐다 금방 남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사위가 되며, 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런 마음 가졌다가 금방 저런 마음 가지고 하는데 어떤 모습일 때 나라고 하며, 어떤 일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 해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거름도 더 줘야겠고 복돋아주어야겠고...

여러분이 그릇이 커져야 나도 더불어 커질게 아닙니까? 여러분이 작으면 나도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은 그릇에다 한 드럼통의 물을 부으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중자라면 나도 중

습니다. 갈갈이 찢어진 냇마 말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진정으로 맡겨 놓을 때 행복감이 젖어들게 됩니다. 돈벌레가 다리가 그렇게 많아도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가듯이.

마음 이라는 건 실체가 아니어서 큰가 하면 작고, 작으니까 하면 큼니다. 그리고 사계절도 사계절 나뉘는 겁니다. 가을에 장마가 들었다 해도 사람이 많이 피해 보는 때가 있고 적게 피해 보는 때도 있습니다. 고 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을도 가을 나름이요, 봄도 봄 나름이며, 겨울도 겨울 나름입니다. 여름도 마찬가지로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서 업보를 만들고 유전을 만들어 인과를 만드는 것이죠. 또 지렁이나 벌레들을 하찮은 미물이

인간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못 쓰면 소로도 태어나고 독사로도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며,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뛰어난 사람으로 태어나며,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통달한 성인 성자로 태어날 수 있으니 이거 정말 여러분 마음에 달린 겁니다. 마음이 천차만별의 모든 살림살이를 들고 내며 거기서 한다는 걸 믿고 맡겨 놓아 줘서 한 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유와 지혜를 가지세요.

나무도 고목이 되면 겹질이 흐물흐물 해지고 진물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늙으면 몸이 쇠약해지고 말을 하면 입가에 뱀자기가 끼이기도 하는군요. 예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지어서 업보를 만들고 유전을 만들어 인과를 만드는 것이죠. 또 지렁이나 벌레들을 하찮은 미물이

**'내가 이만하면 깨달았구나'
망상 갖지 마세요
열매가 무르익어 그 씨 되심어
끝간데 없이 먹일 수 있어야
과거 현재 미래 통달해요**

라고 업신여기지만 여러분 뱃속에는 없는 게 없이 모습도 다양하게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놈들이 소임을 맡아서 운행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벌레를 보면 업신여기고 징그럽다고 하겠습니까? 모습이야 다를지언정 마음이야 어찌 틀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몸이 보이질 않아야 가지고 갈텐데 내 몸이 보인다면 붙잡고 말 것이니 어떻게 해야 가져다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해서 이슬도 독 있는 풀이 이슬을 먹으면 독이 되고 약풀이 이슬을 먹으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이러니 누구 탓입니까? 다 여러분 탓이네요. 지금부터라도 사람이요 벌레고 업신여기지 말고, 배신을 당하고 자식들이 공부할 못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모두 내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선원에는 정신적으로 잘못된 분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을 가져다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밤중에 몰래 갖다 놓으면 아침에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생각으로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그때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때니까요.

그러나 내 몸이 보이질 않아야 가지고 갈텐데 내 몸이 보인다면 붙잡고 말 것이니 어떻게 해야 가져다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해서 이슬도 독 있는 풀이 이슬을 먹으면 독이 되고 약풀이 이슬을 먹으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이러니 누구 탓입니까? 다 여러분 탓이네요. 지금부터라도 사람이요 벌레고 업신여기지 말고, 배신을 당하고 자식들이 공부할 못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모두 내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믿고 놓으면 업보·유전 녹아 본래 자기 만나"

"잘못된 것 남을 원망말고 내탓으로 돌리세요"

이것부터 알아야 하나로 돌아가는 길 알죠. 유와 무가 하나로 돌아가는 것부터 알아야 하나마저도 없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누구 말마따나 모아 모아 다치는 대로 되돌려 놓으세요. 일체를 주인공에서 들고 난다는 것을 믿고 맡기며 사세요.

그래요, 항상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느냐구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공했다는 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누구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반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는 마음의 실천 공행을 할 수 있어야만 나도 좋아 싱긋이 웃을 수 있고, 여러분도 좋아 싱긋이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법계가 함께 웃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질문하나 드리지요. 만약에 이 물음에 대답을 하면 내 상을 주리다. 과거가 현재이고 현재가 과거라면 어떤 게 올겠습니까? 현재 아닙니까?(대답하는 이 있음).

그렇게 물질세계에서 상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땅 속에 씨를 뿌려서 싹이 나오도록 10년 20년 30년 이렇

지일 수밖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부드럽게 말을 하며, 잘 잘못이 있다 해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하지 말며,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게만 해 나갈 수 있다면 큰 대지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속에

서 물분이 터져나온다 해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하고 나온 그 자리에 었 되돌려 놓는다면 스스로 참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스님이 팔죽을 쭈다가 팔죽이 부글부글 끓어 방울 지어 오르는 것을 보고 죽을 짓던 주걱을 가지고 '오늘도 문수, 오늘도 문수, 오늘도 문수' 하면서 주걱으로 내리쳤다 합니다. 그랬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악업, 선업들이 모여 잔뜩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업 선업 속에서 수없이 나오는 문제들을 어떤 사람의 솜에서 방울 지어 나오는 거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팔죽 솜에서 팔죽이 끓는 것이죠. 그러니 율화가 치미는 것, 보고 들음에 비위 상하는 것, 할 것 없이 모두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말고 시대를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가정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다 보면 그 사람은 냄비밖에 될 수 없

들, 백혈병·암·속삭임 등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니다. 그러나 그런 병들을 재료 삼아서 공부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의사가 있어서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까. 단 거 거서 사는 것이니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누가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세균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파업을 일으켜서 잘못된 거라면 거기서 가라앉히고 거기서 낫게 해야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은 몸이 피곤하고 몸에 병이 들면 인생이 허무해서 살 맛이 안나며 죽고만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허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걸 알면서 오히려 이 도리를 알아야겠다는 각오가 됩니다. 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져서 다른 구름덩어리와 다시 모이듯이 인간도 사대로 흩어져서 바람으로 물로 불로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모의 뼈와 살을 빌어 몸을 받아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러나 내 몸이 보이질 않아야 가지고 갈텐데 내 몸이 보인다면 붙잡고 말 것이니 어떻게 해야 가져다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해서 이슬도 독 있는 풀이 이슬을 먹으면 독이 되고 약풀이 이슬을 먹으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이러니 누구 탓입니까? 다 여러분 탓이네요. 지금부터라도 사람이요 벌레고 업신여기지 말고, 배신을 당하고 자식들이 공부할 못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모두 내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 몸이 보이질 않아야 가지고 갈텐데 내 몸이 보인다면 붙잡고 말 것이니 어떻게 해야 가져다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해서 이슬도 독 있는 풀이 이슬을 먹으면 독이 되고 약풀이 이슬을 먹으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이러니 누구 탓입니까? 다 여러분 탓이네요. 지금부터라도 사람이요 벌레고 업신여기지 말고, 배신을 당하고 자식들이 공부할 못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모두 내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천장의 전구를 보세요. 모습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전력이 똑같은데 어찌 따로따로이겠습니까? 전력이 없다면 빈 전구 밖에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척척 다 떼어버리겠지, 마음대로... 공부를 하고 못하고는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시는는 먼저 오고 나중 오고 없습니다. 법을 이어받는 데는 선, 후가 없다는 걸 아시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합 찬 주인공

이시어운의 새책 **대행 스님의 신명 무당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살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삶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누는 이 책의 말씀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빛나는 깨달음의 원동력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영웅 451호
이시어운 29년 5월 500원

이 책에 소개된 30여 항목의 질문의 원형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 (94.10.15)부터 143호(97.9.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1년에 12회 정도 있었던 것을 주재별로 묶은 것입니다.

이시어운은 "좋은 바를 적어 이것만도 읽어 보라"는 정신으로 지혜 및 덕을 쌓을 만능입니다.
주소: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